

# 후보자 7명중 6명 나주 출신 ... 화순 표심이 ‘캐스팅보트’

## ■ 누가 뭐나

나주·화순은 그간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세가 뚜렷한 지역구였으나 최근 국민의당이 등장하면서 이 지역구는 야권재편의 소용돌이의 중심에 서게 됐다. 현재 이 선거구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지지세력이 뚜렷하게 구분되면서 이번 4·13 총선에서 다른 어느 지역구보다 과열 양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지역구를 지키고 있는 가운데 전현직 국회의원과 시장, 도의원들이 도전장을 내민 상태다. 특히 이 지역구는 후보군 대부분이 나주 출신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사실상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 화순 유권자들의 표심을 어떤 식으로 이끌어나가는 점도 이번 총선의 최대 변수 중 하나다.

특히 나주혁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인구가 급증했는데, 인구 대부분이 외지인들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의 표심을 어떻게 공략하느냐도 변수다.

이 지역구 역시 ‘더민주-국민의당’ 후보군 맞대결이 펼쳐지는데, 양당의 공천이 마무리될 때까지 이 지역구의 선거구도는 상당한 출렁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국민의당의 경우 아직까지 공천 물이 명확히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예비후보들이 대거 몰리면서 공천경쟁이라는 예선전과 함께 더민주와 본선경쟁도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민의당 공천경쟁에서 탈락한 예비후보들이 자당 후보를 지지할 것인지 여부도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KTIX 나주역 경유와 나주혁신도시 문제, 낙후된 지역경제활성화 등 지역현안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여부도 이번 총선에서 핫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새누리당=새누리당에서 김종우 나주화순당협위원장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

						
정당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국민의당	국민의당	국민의당	무소속
이름 김종우	신정훈	강백수	김대동	손근주	홍기훈	노정채
나이 58	51	59	70	44	63	64
약력 ·현) 당 나주·화순 당협위원장 ·전) 동강농협 조합장	·현) 국회의원 ·전) 나주시장	·현) 세무법인 인경 대표 세무사 ·전) 경기도의원	·전) 전남도의원 ·전) 나주시장	·현) 법무법인(유)을촌 변호사 ·전) 서울행정법원 판사	·현) 국민의당 정당발기인	·현) 꼬빠동 연구소 대표 ·전) 노동부 근로감독관

## ■ 전남지역 선거구



## 새누리 7·30 재선거 22% 득표 김종우 출마

## 더민주 신정훈 의원 나홀로 등록 재선 노려

## 국민의당 강백수·김대동·손근주·홍기훈 출마

## 근로감독관 출신 노정채 무소속 후보 등록

나오고 있다. 특히 지난 1년5개월간의 의정활동기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한중 FTA 농업피해 축소와 규정위반 밥쌀용 저가방출에 대한 문제점 지적 등 농업 분야에서 상당한 기여를 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신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빛가람 혁신도시 지원과 백신 글로벌산업화 기반 구축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지역현안을 풀어가면서 지역민들의 표심을 공략하겠다는 입장이다. 우선 빛가람 혁신도시가 에너지산업의 성장거점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은 물론 백신 글로벌산업화 기반 구축사업을 통해 화순을 백신 글로벌 허브도시로 키우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신 의원의 재선고지 점령은 그다지 녹록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더민주에 대한 지지도가 예전 같이 많은 상황에서

신 의원이 예상을 수월하게 통과하더라도 국민의당 후보와 본선경쟁을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그간 나주 출신 후보들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점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는 화순 유권자들의 표심을 어떻게 공략하느냐 여부도 관건이다.

◇국민의당=나주·화순에서 국민의당 후보는 강백수 전 경기도의원과 김대동 전 나주시장, 손근주 변호사, 홍기훈 전 국회의원 등 모두 4명이다.

나주 출신으로 경기도의원과 한국세무사회조사제도연구위원, 민주통합당 정책위부위원장 등을 역임한 강 후보는 세무전문가라는 점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그는 지난 7·30 재보선에서 무소속으로 출마, 낙마했다. 그는 이번 총선에서 의정활동 경험과 행정사·공인중개사·세무사 등 많은 사회활동 경험을 살려 발로 뛰겠

다는 각오다. 양극화와 불평등의 격차를 해소하고 10% 기득권세력과 가진자만 잘사는 나라가 아니라 농민·노동자·중산층·서민이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복지국가, 새 정치를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이번 총선 공약으로 ▲혁신도시의 성공 지원 ▲구도심의 균형적 발전 ▲분열과 갈등으로 치닫는 나주·화순의 화합과 통합 등을 제시했다.

김대동 전 나주시장도 국민의당으로 예비후보 등록을 한 뒤 바닥을 다지고 있다. 나주 출신으로 전남도의원과 나주시장 등을 역임한 김 후보는 당 창당발기인으로 이름을 올린 뒤 지역 민심을 공략 중인 것 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는 지난 2002년과 2006년 두 차례에 걸쳐 나주시장 자리를 놓고 신정훈 의원과 대결을 벌였으나 아쉽게 패했다. 이번 총선에선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나주 출신인 손근주 후보도 참신함과 열정을 무기로 국민의당에 합류했다. 광주지방법 판사와 서울행정법원 판사, 서울동작구청 고문변호사 등을 역임한 손 후보는 현재 방송통신위원회 고문변호사 및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법제처 법령심사해석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손 후보는 법조인으로서 다양한 경험을 두루 갖췄다는 점이 최대 강점이다. 그는 이번 총선에서 패

거리 부패정치를 척결하고 나주·화순 지역민을 섬기면서 국민이 주인인 새로운 정치를 실현하겠다는 각오다. 그는 이번 총선 공약으로 ▲혁신도시와 구 도심간 균형발전 ▲농촌 바이오산업 육성 및 디지털 생산·유통체계 구축 ▲영산강개발 중장기사업 추진 ▲전남대 화순이전과 헬스케어 기반 의료서비스 환경 조성 등을 제시했다.

홍기훈 후보도 국민의당에 합류한 뒤 지역민심잡기에 나서고 있다. 화순 출신인 홍 후보는 13대·14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고(故) 홍남순 변호사의 아들인 홍 후보는 국회의원 등을 지내면서 인맥이 두터운 평가를 받고 있다. 홍 후보는 이번 총선에서 호남정치 복원을 통한 민주적 정권교체를 이뤄내겠다는 각오다.

그는 지역발전방안으로 ▲혁신도시 한시적 특별법 제정 ▲화순 백신산업 글로벌 산업화 지원기반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나주 영산포 일원 국민관광단지 조성 ▲광주지하철 화순전남대병원과 나주 혁신도시 연장 등을 제시했다.

무소속 후보인 노정채 전 노동부 수석 근로감독관도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뒤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나서고 있다. 나주 출신인 노 후보는 지난 37년간 노동부에서 근무, ‘노동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 ■ 관전 포인트

나주·화순의 관전포인트는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의 재선 여부다. 지난해 재선거에서 당선된 신 의원은 더민주를 탈당하지 않고 당에 남아 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조직력을 앞세워 지역 표발을 다지고 있는 신 의원이 이번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한다면 당내 입지도 한층 더 굳건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만만치 않은 나주와 화순 민심이 신 의원의 1년5개월간의 의정 생활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가 변수다. 특히 국민의당 공천문제도 관전 포인트 중 하나다. 신 의원의 경우 예선을 가볍게 통과하더

## 신정훈 조직·국민의당 바람 ‘한판 승부’

라도 본선인 국민의당 후보와 한판 승부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국민의당에선 현재 4명의 후보가 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국민의당 측은 여론조사와 당원투표, 숙의배심원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신 의원과 대적할만한 인물을 내보내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신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 김종우 후보와 재대결이 펼쳐지는데, 지난해 재선거에서 김 후보가 야당 텃밭에서 22.2%의 득표율을 올렸다는 점에서 관심이 모이고 있다. 공천을 통해 국민의당 후보가 정해지면 3차 대결이 예상

되는데, 김 후보의 득표율이 신 의원에 비해(得)이 될지 아니면 실(失)이 될지 판가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국민의당에선 이 같은 점을 고려, 공정한 경선을 통해 후보를 공천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현역 물갈이에 대한 여론이 높다는 점도 신 의원에겐 부담이다. 다만 신 의원의 경우 오랫동안 나주에서 머물면서 전남도의원과 나주시장을 역임하는 등 지역적 특성을 어느 누구보다 잘 안다는 점은 장점이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 ■ 선거구 특징

나주·화순 선거구는 출마후보 대부분이 나주 출신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후보자 대다수가 나주 출신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 화순 유권자들의 표심이 후보자의 당락을 좌우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2월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예비후보는 모두 7명으로 이중 나주 출신 후보는 6명이다.

나머지 1명만 화순 출신, 나주·화순 인구 수는 16만7276명으로, 이 가운데 유권자 수는 14만265명이다.

## 혁신도시 인구 급증 ... 외지인 표심 변수

지역별로는 나주 10만1486명 중 8만 6173명, 화순 6만5790명 중 5만4092명이다.

나주 출신 후보 6명이 지역을 앞세워 표발을 나눠 가진다고 가정하면 화순의 표심에 따라 총선의 승패가 갈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특히 나주 출신 후보들이 줄곧 국회의원에 당선되면서 화순 지역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이 큰 상황인데, 이 반감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도 변수다. 또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주변 인구가 급

증한 점도 특징 중 하나다. 빛가람혁신도시가 들어서면서 해당 지역 인구 수도 늘었는데, 지역민 대다수는 원주민이 아닌 외지인들이다.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서 온 이들 외지인들이 이번 총선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도 지켜볼 부분이다. 이들 유권자들의 표심이 승부를 가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 당뇨망막병증

당뇨병으로 말초혈관 장애가 발생해 시력이 감소하는 눈의 합병증입니다. 당뇨환자는 정밀안저 검사를 통해 당뇨망막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 치료 방법

중증성 당뇨망막병증이 심해 안구 내 망막출혈이나 유리체내 출혈이 발생한 경우 레이저를 이용해 치료하거나 유리체절제술을 시행합니다.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노양빌딩을 찾으세요

진료내과 소아과/리식/라섹/백내장/녹내장/안과/안정형/노안



백운광주안과



의료광고심의필 제150204-총-68156호

# 새생명탄생



시엘병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외수정기술 | 산부인과 복강경수술 | 습관성 유산 · 종합건강검진센터

www.clwhivf.com | www.시엘병원.com ☎(062)368-1700